

1천억원의 질병피해 누가 보상해 주나

— 서울근교 양계장은 초상집이라고 하던데 —

민 병 호 / 월간양계 기자

최근 경기도 일원의 크고 작은 브로일러 및 채란계 농장에서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것 같아 기자는 서울근교의 몇군데 농장을 방문해 그 실례를 조사해 보았다.

82년 이후 질병 거의 없어 신경쓰지 않아 질병피해 연간 1천억원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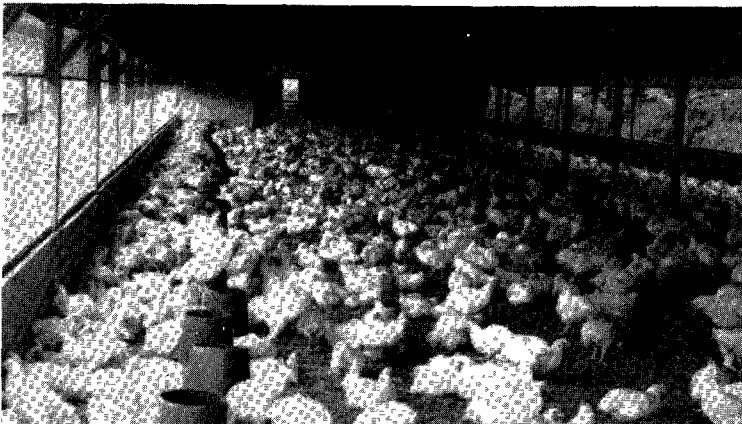
근간의 닭질병은 82년도 3월에 ILT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이래 현재까지 이렇다할 문제시된 질병이 없었던 탓으로 질병예방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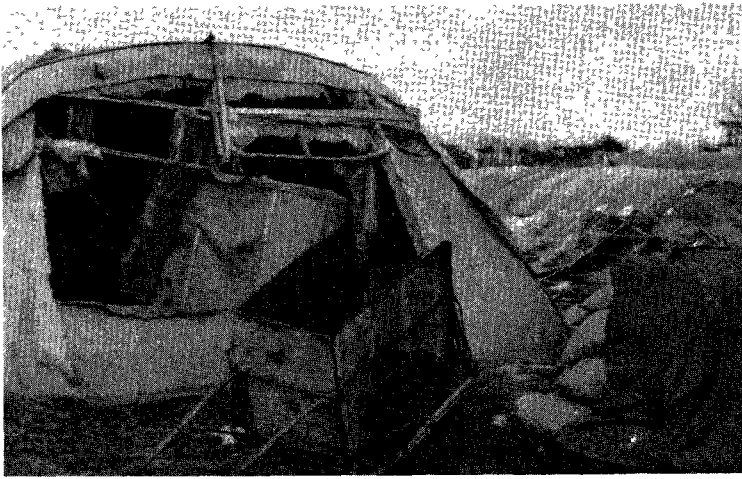
은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간헐적으로 원인모를 산란저하 ND, ILT증상과 호흡기 등이 지역적으로 조금씩 나타나 양계농가에 미약한 정도의 피해를 주어왔던 점을 들 수 있고, 몇년간 질병이 적었던 이유와 사료질의 향상으로 질병에 대해 양계농가가 무관심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즘(지난 85.11~86.1)에 피해를 보았다는 농장은 대부분 브로일러농장으로서 사육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피해 정도가 심하고 그 외에 채란 농장들이 심심치 않게 피해를 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축산업에서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천억원이 넘는다는게 일부 학자의 주장이다. 또한 사료손실의 피해는 양계업계에서만도 연간 약 600억원이라는 손해를 보고 있음은 쉽게 양축가들이 납득이 가질 않을 것이다.

가장 피해가 심했다는 김포 지역 예를 들어본다





△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백신해도 감염돼 무엇을 믿어야 하나

김포에서 브로일러농장 만을 10여년간 경영하며 지역 유지인 S씨의 경우 A부화장에서 8천수의 병아리를 받아 입추했는데 3주령서부터 하루 2~3% 폐사가 나기 시작하여 결국 삼계탕용으로 출하를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겁이 나서 울봄에나 입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의 경우 85년 12월 중하순부터 브로일러 병아리 입추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3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G씨는 축산의 박식한 지식인으로 관련업계 영업도 해온 터라 상당한 실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고 귀뜸해주었다.

J씨의 경우 중추 갈색산란계 병아리를 B부화장에서 4천수

입추해 50일령쯤 되니 ILT, ND로 보이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1천수가 폐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산란중인 성계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하며 부화장사양관리 지침대로 예방접종을 했다고는 하지만 숨기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았다.

이번에는 82년 ILT가 처음 발병되었다는 강화도의 육계, 채란계농장을 둘러 보았으나, 크게 문제된 질병이 없다는게 이 지역의 중추적인 K사장의 말이다. 좀더 자세히 알아 보려고 강화 J약품상사 K원장에게 물어봐도 질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부천, 부평의 경우 요즘 산란계단지에서 원인모를 증상으로 산란의 급격한 저하와 폐사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한다. 아마도 ILT나 ND 등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

일산 K농장의 경우 산란계 15만수를 사육하는데 산란율이 20% 정도 감소와 10% 가까운 폐사의 손실을 보았고, 포천 C농장(단지)은 성계 산란계 10



△ 원인모를 산란율의 저하로 채란계 농장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만수 규모에 15%의 폐사를 당했다고 모사의 영업사원이 전해 주었다.

또한 파주 모씨도 브로일러 사육 경험이 6년쯤 되는데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의 경우 J씨는 120일령 된 산란계에서 ILT, ND의 증상으로 10% 폐사를 보았고, P씨의 육계농가에서는 같은 증상으로 12,000수중 8천수가 폐사했다 한다.

물론 산란계에서는 백신접종을 한 농장도 있고, 하지 않은 농장도 있지만 브로일러의 경우 백신을 전혀하지 않은 농장이 피해를 크게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이 많은 피해를 본 이 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해 본다.

지난 82년 이후 닭 질병발생이 거의 없었던 관계로 백신접종과 방역에 대한 질병전반에 걸쳐 무관심했고, 브로일러의

경우 올인 올아웃(All in All out)을 하지 않고 연속육추를 하고 있다는 점과 구정 성수기를 겨냥한 물량의 과잉입추 또한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는데, 사육기간이 짧아 백신하기가 경제적으로 아깝고, 사양가들의 무관심, 귀찮아하는 요인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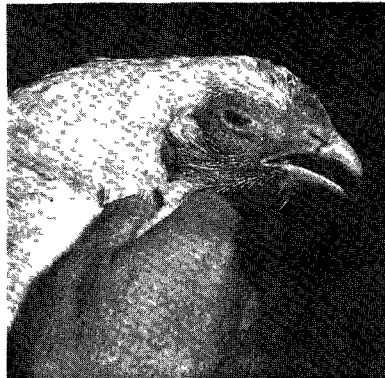
또 한번 백신접종하는데 50g의 체중이 감소하여 사료효율을 저하시키고, 인건비 등의 손실로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1일령에 분무하는 분무백신(ND)의 개발 또는 보급이 요구되는 바 양축가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계절적(10월~3월)으로 ILT 발생이 심한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ND 백신도 많은 양축가들이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문제가 된 ILT 혹은 ND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증상으로 양축가들이 방역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ILT의 경우 85년 가을 여주·이천 지역에서 발병된 것으로 보이며, 육계분포가 밀집된 지역에서, 심한 지역은 산란계농장도 ILT, ND 피해를 입고 환경상태가 나쁠때 다른 호흡기성과 혼합 감염되어 피해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사료공장, 부화장에서 수급 때문에 입추유도로 양축가 기진맥진

브로일러의 경우 환경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ILT에 감염되었던 지역은 입추를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는 사료,약품, 병이리값의 회전을 위해서 입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다 사료공장, 부화장에서는 수급하기 위해 입추를 유도하며,소독만 잘하면 된다고 설득해서 입추를 시키는 악덕상인도 있는 것 같다. 바로 이런 점이 설상가상으로 생산자를 아주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농가의 닭은 상품가치가 거의 없어 도계장에서도 거절을 하는 형편이다. 도계품은 푸른색을 띠고 꾸글꾸글해 도계시간도 지연이 되고 상품성이 없어 도계하면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A도계장 S씨는 말했다.

ILT에만 감염되면 회복이 빠르는데 다른 호흡기와 같이 혼합

감염되면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

ND 감염시 심하면 막대한 폐사가 나오고 ILT의 경우 10%, 다른 호흡기와 ND나 ILT가 복합되면 20~30% 폐사가 난다고 C사 O상무는 말한다.

결론적으로 브로일러는 올인아웃(All in All out)하고 ILT에 감염되었던 농장과 심한 농장에서는 입추를 중단하고, 산란계의 경우 백신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질병 감염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계기관 또는 학술기관에 의뢰, 명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 취재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육계 종계노계, 갈색노계, 백색노계,
구입 및 증추, 대추, 환우계 등 전문 취급 업체**

구구유통센터

귀 농장에서 다가오는 동절기에 각종 노계를 대량으로 도태할 때 재산상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입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 장소에 사무실을 개설, 주·야 대기하고 있어오니 적극 협조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수, 황 적 상
박 입 규, 고 정 곤**

주소 : 서울 성동구 구의동 199-89
전화 : 444-9931, 9932
구구유통 전원 올림